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양양소식

2020. 8. Vol. 303

가세, 양양으로!

서핑 마니아, 양양을 사랑하는 배우 오광록

평소 서핑을 즐겨하고 양양을 사랑하는 배우 오광록

양양 홍보영상 섭외요청에 바로 GO를 외치며
'올여름, 가세 양양으로' 홍보영상을 멋지게 촬영해주신 오광록 배우님께
감사드립니다.

30도가 웃도는 무더운 여름날, 무거운 나무 서핑보드를 메고
상투를 튼 조선시대 서퍼의 모습으로 해질녘까지 논길을 걷고,
산길을 또 걸어서...
드디어 찾았다! 조선시대 최고의 파도타기 고수가 모인다는 전설의 그 바다!
저기 저쪽 「양양 죽도해변!」

올여름 가세~ 양양으로!!

사진출처 : sidusHQ

양양소식

Vol. 303

CONTENTS

희망양양

04 **기획특집_** '가세 양양으로' 서핑 홍보영상 제작과정

07 ISSUE & PEOPLE_ 배우 오광록

10 **양양여행_** 요즘 젊은이들에게 핫하게 떠오르는 대체 여행지 '양양'

14 **맛있는 양양여행_** 서핏발 같은 창해의 탕반음식 '섭국'

의기양양

16 YANGYANG NEWS

20 **의정소식_** 양양군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출범

22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_** 자심탑 효행이야기

열린양양

24 **문화마당_** 이달의 책이야기 / 추천신간

25 **정보꾸러미_** 일자리 정보 / 공공기관 행정정보

28 **공익광고**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양양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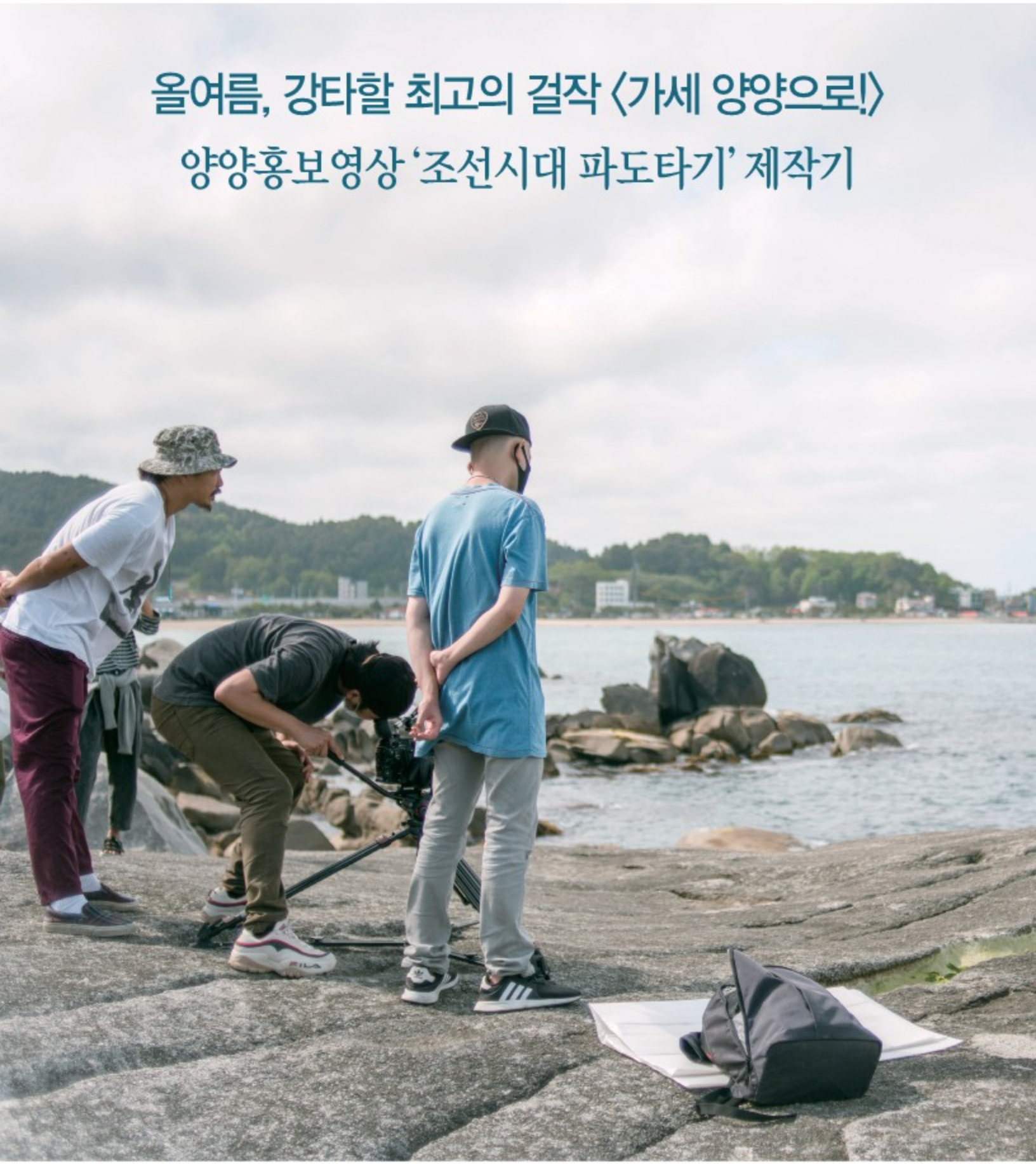
양양소식 · 303호

| **발행일** 2020년 8월 3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양양군정소식지「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 입니다.
구독은 ssugi0129@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올여름, 강타할 최고의 걸작 〈가세 양양으로!〉

양양홍보영상 '조선시대 파도타기' 제작기



'올여름, 가세 양양으로!' 영상보기

– 양양군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ikeyyang
– 양양군 유튜브 : 고맙다 양양

하와이에서 시작된 파도타기는 약 13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만약, '조선시대부터 파도타기를 시작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주 단순한 의문에서 기획은 시작됐다.
처음에는 '조선시대 파도타기'라는 단편 영화를 위한 시나리오로 출발했다. 배우 정태우의 겨울 서핑 홍보 영상으로 연을 맺은 양양군으로부터 여름 편 제작 제안을 받게 되었고, 양양 홍보 영상으로 각색되었다.

영화적 상상력으로 구상하던 '조선시대 파도타기'를 양양 홍보영상에 접목하고 싶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영화 예고편 형식이었다. 군에 촬영 콘셉트 방향을 전달하니 다행히도 흔쾌히 허락했다. 한복을 입고 서핑을 하는 이색적인 모습과 신 스틸러 부문 최강 배우 오광록의 이미지가 합쳐지면 분명,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또한 그간의 관공서 영상들은 일출과 같은 풍경과 관내의 한옥 등 한정적인 소재들과 로고가 내내 노출되는 것이 관례였기에 조금만 연출의 의외성을 곁들여도 소비자의 흥미를 유발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편 '조선시대 서퍼'라는 허구에 따른 고민들도 뒤따랐다. 조선시대라면 '어떤 서프보드와 의상을 입었을까?' '그 당시 파도 타는 사람들의 사회계급은?'이라는 답이 없는 질문들에 촬영일자가 다가오며 조급함은 더해갔다. 수소문 끝에 양양 인구에 위치한 나무 공방 웨이브 우드(Wavewood)에 하와이 초창기 서프보드를 재현해놓은 알라이아(초창기 서프보드 형태)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가장 큰 고민이었던 의상 또한 신진 패션 디자이너 유진의 도움을 얻어 천민도 아닌, 양반도 아닌 머릿속에 그리던 계급과 의상이 완벽하게 해결됐다.

스튜디오에서의 촬영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촬영은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바다 영상이다 보니 더더욱 날씨가 핵심! 적당한 크기의 파도와 눈부신 햇살이 필요했다.

많은 촬영 장비들과 스태프들은 물론, 배우의 스케줄을 재조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기에 초조한 마음과 함께 촬영 전날까지도 오락가락하던 날씨에 마음을 졸였다.
촬영 당일, 회색빛으로 우중충하고 회오리바람 불던 하늘은 다행히도 구름 사이 옅은 빛줄기와 함께 고요해지며 서서히 푸른빛이 감도는 최적의 광량, 적절한 파도와 산들바람이 불어왔다.

대한민국 최정상 여성 서퍼 임수정과 죽도 로컬 서퍼 황병권의 도움을 받아 영상의 핵심 포인트였던 한복을 입은 서핑 수중 촬영까지도 원활히 진행됐다. 물을 머금어 무거워진 원단에다가 신축성이 전혀 없는 한복을 입고 서핑을 한다는 건 쉽지 않다. 그러나 두 서퍼들의 뛰어난 실력으로 짧은 시간에도 원하던 컷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이후 촬영 진행은 매끄러웠다. 유명 가수들의 뮤직비디오와 수많은 브랜드 영상을 맡았던 OVJ 공수빈 촬영감독 팀과 2인의 포토그래퍼가 함께 했다. 파도타기와 자연을 사랑하는 배우 오광록은 소재 자체가 흥미롭다며 매순간 감정선을 놓치지 않고 신중하게 연기에 임했다. 자신의 연기에는 엄격하면서도 반면 스태프들에겐 너그러웠다. 나무와 나무 사이 비탈길을 미끄러지는 장면에서 살점이 파이는 부상을 입었지만 자신의 상처를 돌볼 새도 없이 '원래 촬영 중에 자주 있는 일'이라며, 연신 '괜찮다'며 오히려 당황한 스태프에게 웃으며 안심시키기도 했다.

대부분의 촬영은 현남면 남애리 갯마을 해변과 죽도암에서 진행됐다. 주인공인 배우 오광록의 명품 연기도 한몫했지만 무엇보다 촬영지인 현남면 인근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번 홍보영상에 아주 큰 역할을 했다.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처럼 많은 이들과 한마음으로 만들어진 영상은 현재 서울의 중심지인 강남역 옥외 광고판과 각종 SNS에 노출되며 "언제 개봉하나?"라는 때아닌 관심을 받고 있다. '진짜 우리나라 파도타기가 조선시대부터 있었나?'라는 역사 왜곡(?) 질문에는 진땀을 흘리기도 한다.

'조선시대 서퍼'라는 영화적 상상력과 대한민국 '서핑 1번지 양양'이 만나 올여름을 강타하고 있는 양양홍보영상 최고의 걸작 〈가세 양양으로!〉, '언젠간' 극장에서 개봉할 날도 있지 않을까. "그런 날이 실제로 오긴 오나?" 배우 오광록의 목소리가 쟁쟁히 들리는 듯하다.

〈**글 · 사진 :** (주)더블유에스비 팜 한동훈 CEO〉

파도 타는 배우, 양양에서 우아한 서퍼를 꿈꾼다.

괴나리봇짐과 짚신 한 켤레, 그리고 기다란 나무 판자를 짊어지고 길을 떠나는 선비의 뒷모습이 궁금증을 자아낸다. 그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최근 양양군청 공식 블로그에 공개된 홍보영상의 한 장면이다. 조선시대 서퍼라는 이색적인 소재와 화려한 영상미, 그리고 조선시대 파도타기 명인으로 분한 배우 오광록의 진중하면서도 코믹한 연기가 이번 영상의 킬링 포인트로 손꼽힌다.
실제로 5년 차 서퍼이기도 한 오광록 배우는 틈날 때마다 양양 바다를 찾는다고 한다. 그에게 양양의 바다는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곳이자 도전과 극복이 공존하는 현장이다. 양양의 파도와 함께했던 그간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최고의 파도를 찾아 나선 조선시대 서퍼

그동안 개성 넘치는 캐릭터를 연기해 온 오광록 배우는 이번 양양군 홍보 영상에서 파도타기 고수들이 산다는 전설의 해변을 찾아가는 조선시대 서퍼 역할을 맡았다.

"기획은 2개월 걸렸는데 촬영은 하루 만에 끝났어요. 촬영할 때 특별히 힘든 점은 없었지만, 짚신을 신고서 산을 오르내리다가 미끄러져서 살짝 까지고 멍이 들긴 했죠. 그 다음에 바로 '찾았다!'(전설의 해변을 발견하는 장면)라고 외치는 연기를 해야 했는데 이 대사가 가장 어려웠어요. 너무 코믹하지 않게 무게감을 가지려고 노력했죠. 대신 마지막 부분에 '가세, 양양으로, 저기, 저쪽'이라는 대사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으로 연기했습니다."

짧은 대사라도 연기의 디테일을 고민하는 모습이 과연 관록 있는 연기파 배우답다. 주인공이 어떤 마음으로 길을 떠났을까를 생각했다는 오광록 배우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놀이를 찾으러 간다는 사명감으로 즐겁게 촬영에 임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파도타기 명인으로 활약했지만, 현실에서는 5년 차 햇병아리 서퍼인 오광록 배우. 서핑에 입문하기 전 그는 깊은 물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다. 양양 하조대에서 영화 촬영을 하던 중 바다에 빠지는 장면을 연기하다가 이안류에 떠내려가는 아찔한 사고를 겪고 나서다. 이후 양양에 거주 중인 이현승 감독의 권유로 서핑을 접하면서 다시 바다를 마주하게 된 그는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 보겠다는 의지로 서핑에 도전했다.

"이번 양양군 홍보 영상의 연출을 맡은 한동훈 대표(주식회사 더블유에스비 팜)는 제가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준 분이에요. 파도가 아주 센 날에 먼바다까지 함께 나가서 깊은 물 속에서 발이 닿지 않은 공포를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해주었죠. 그 인연으로 양양군 홍보영상 제작에도 참여하게 되었고요."

서핑으로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다

두려움을 마주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영영 회피하거나 정면 돌파하는 것. 서핑과 파도는 오광록 배우에게 '도전'과 '극복'의 상징이다. 바다를 마주할 때마다 긴장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것을 오히려 응원의 북소리라고 여겼다고 말하는 그는 양양에서 만난 훌륭한 서퍼들을 스승 삼아 여러 조언을 들으며 많은 것을 배웠다.

"이전에는 물에 빠지면 겁이 나니까 발이 닿는지부터 확인했는데, 이제는 리쉬코드(보드와 발을 연결하는 줄)부터 확인해요. 다른 보드들과 부딪히지 않게 방어하는 법도 배웠고요. 보드에서 일어서는 것을 '테이크오프'(Take off)라고 하는데, 낮은 수심에서 선생님들이 도와줄 때는 열 번 중 아홉 번은 성공했어요. 지난번에는 처음으로 혼자 수심이 깊은 곳까지 갔는데, 파도를 기다렸다가 2시간 만에 테이크오프에 성공했죠. 보드를 타고 물 위를 미끄러지는 시간은 길어야 10초 정도지만, 대단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파도를 '푸른 물결의 산'이라고 표현한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상을 오르는 것처럼 서퍼들은 좋은 파도를 만나기 위해 열심히 노를 젓는다고 생각한다.

"서퍼들끼리 하는 말 중에 '똑같은 파도는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모두가 똑같은 파도를 만나는 것은 아니기든요. 그래서 서핑을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도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자기에게 맞는 파도를 기다리는 것이죠. 자기에게 맞는 물결을 익히면서 배워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서핑은 인생과 닮아있다고 볼 수 있겠죠."

돌아서면 생각나는 양양의 바다

파도타기의 매력에 흠뻑 빠진 오광록 배우는 서핑을 더 열심히 하고 싶어 양양에 작은 거처를 마련하고 작년부터 한 달의 절반은 이곳에 머무르고 있다. 하루에 2~3시간씩 파도를 타고, 시원한 맥주를 마신다. 서프보드에 오르지 않는 날에는 산책하고 에메랄드빛 바다를 마음껏 눈에 담는다. 이현승 감독의 영화 '죽도 서핑 다이어리'에서 호흡을 맞춘 정태우 · 박호산 배우와 함께 서핑을 즐기기도 한다. 한때 공포의 대상이었던 바다가 지금은 좋은 인연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요즘은 양양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가게 되면 집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양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양양살이의 묘미를 느끼고 있다.

"양양은 산과 바다가 너무 멋진 곳이고, 교통편이 좋아져서 쉽게 오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누구나 그렇듯이 몸과 마음의 휴식을 위해 자연을 찾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양양은 힐링의 공간이 될 만하죠. 바다도 아름답고 산에 가면 별들이 쏟아지고. 양양으로의 이주요? 음,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긴 해요. 하지만 그것 역시 자연스러운 게 좋은 것 같아요. 파도에 욕심을 내지 않고 서핑을 즐기듯이 내게 맞는 것을 서서히 찾아 나가야겠죠."

양양의 바다는 '선물'이라고 말하는 오광록 배우. 그는 꿈꾸는 대로 언젠가 이곳에서 우아하게 파도를 가르는 70대의 서퍼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 모습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도전할 용기를 주고, 상처를 극복할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조용히 희망해본다.

〈**글 · 사진 :** 편집부〉

요즘 젊은이들에게 핫하게 떠오르는 대체 여행지 '양양'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비행길이 막힌 여행자들이 최근 국내여행지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그 중 양양은 외지를 방문하는 것을 넘어 색다른 경험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마치 동남아를 연상시키게 하는 이국적인 분위기와 더불어, 세련된 감성을 지닌 힙(HIP)한 여행지로 사랑받는 양양, 오늘은 여행에 미치다 양양군 홍보영상에 소개된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양양의 인기 명소들을 알아보자.

서피비치

양양의 랜드 마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국적인 프라이빗 비치, 마치 외국의 한 섬에 놀러온 것 같은 환상적인 해변에는 서핑을 즐기는 이들부터 일광욕을 하거나 코로나 맥주를 마시며 여유를 느끼는 이들로 가득하다. 별도의 입장료 없이 빈백, 선 베드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 서핑에 흥미가 없더라도 양양에 방문한다면 꼭 방문해보자.

서프월드

서핑하면 양양, 양양하면 서핑인 만큼 양양에는 해변마다 다양한 서핑샵들이 들어서 있는데, 대부분 숙박이나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패키지로 이용하면 훨씬 합리적인 가격에 양양을 즐길 수 있다. 최근 여행객들 사이에 인기가 많은 서프월드의 경우 주간에 서핑을 배우고 수제버거나 바비큐를 즐기며 저녁에는 실내풀장에서 칵테일을 즐기며 하루 종일 알차게 보낼 수 있는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파머스키친

서핑을 즐기고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 찾아간 양양 명물 수제버거맛집 파머스키친!
마치 하와이에 온 듯 한 인테리어가 버거의 맛을 더욱 증폭시켜주는데, 평소 다이어트를 하느라 햄버거가 부담스럽다면, 탄수화물 가득한 빵을 상추로 대체해주는 '프로틴번아웃' 옵션도 준비되어 있으니 꼭 한번 들러 먹어보기를 추천한다.

죽도전망대

바다가 유명한 여행지라면 어디에나 있는 전망대가 식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양리단길 바로 옆에 위치해 있을뿐더러, 그렇게 높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 소화시킬 겸 산책하기 좋다. 멋스러운 나선형 전망대를 올라 죽도해변과 인구해변을 한 번에 바라보고 있으면 답답했던 속이 다 뚫리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곳.

주전골 트레킹

최근 인적이 드문 자연에서 힐링을 하는 언택트(Untact) 여행 또한 인기몰이를 하면서 등산, 트레킹에 대한 관심 있었다면 별도의 장비 없이도 캐주얼하게 설악산의 정수를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오색약수에는 무장애탐방로가 잘 닦여있어 휠체어를 동반한 여행객들도 트레킹을 즐길 수 있으며, 용소폭포까지는 왕복으로 약1시간 30분정도가 소요된다.

두둥실

발리느낌 핫플레이스 두-둥실!
라탄으로 가득한, 해외 못지않은
뷰와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
비치 클럽의 느낌으로 파라솔, 썬배드, 카바나가 쭉~
곳곳이 포토존으로 가득한 양양의 발리로 추천!

송이골

양양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송이버섯이다. 양양의 자연송이가 통째로 들어간 돌솥밥에 생선구이와 간장게장까지 무려 16첩 반상으로 숭늉까지 상다리 부러지게 배를 채울 수 있는 맛집.

수산항물회

평일에도 웨이팅을 감수해야 하는 소문난 맛집 수산항물회, '조개의 껍질에 비해 속살이 작아 제쳐하고 보잘 것 없다'는 뜻으로 이름 붙여진 토종 조개 패복을 전문적으로 요리해주는 집이다. 패복은 작은 조개라 맛이 비리지 않고 고소한 맛이 나고, 동해안 참문어는 엄청 쫄깃하고 맛있었다. 가게이름은 물회집이지만, 패복국과 패복전을 주문해 먹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의아했다. 여럿이 방문을 했다면 골고루 시켜 다양하게 맛보는 것을 추천한다.

파마씨

카페로 소개를 하지만 사실 파마씨는 수제버거, 치킨으로도 이름을 날리는 맛집이다. 바다를 바라보며 널찍한 공간에 테이블간 간격도 많이 떨어져있는 편이라 여유롭게 수다떨기 좋은 곳, 양양 '분홍문카페'라고도 알려진 만큼 입구에서 인증샷은 필수!

탠덤커피클럽

또 하나의 포토스팟으로 유명한 탠덤커피클럽, 화이트 톤의 깔끔한 인테리어에 하늘색자전거 로고로 포인트를 주어 미니멀 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지닌 카페.
사진스팟으로 알려진 곳은 로스팅룸이며 카페 공간은 생각보다 넓어서 여럿이 방문하기도 좋다. 직접 커피를 볶는 만큼 차별화된 커피 맛까지 느낄 수 있는 곳.

바다지기공방카페

푸르고 하얀 양양의 감성에 잘 어울리는 카페, 높은 천장에 통유리사이로 햇살을 가득 받으며 여유를 느끼기에 좋은 곳이다. 카페이름처럼 2층에 별도공방을 운영하여 직접 제작한 팔찌와 같은 악세사리도 선보이고 있다.

함스베이커리

'생활의 달인'에도 소개된 양양에서 가장 유명한 빵집.
대표메뉴인 춘빵은 밀가루와 효모가 들어가지 않은 찹쌀곰보빵으로 겉은 바삭하면서도 속으로는 깨찰빵스타일로 쫀득한 식감과 함께 은은하게 쑥향이 단맛과 어우러진다. 가게의 유명세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나, 바로 앞에 위치한 물치항에서 등대를 구경하며 먹으면 더욱 풍미롭게 즐길 수 있다.

예쁘다 하조대

양양의 명소인 하조대 근처에 위치한 SNS감성을 완전히 저격한 카페, 커다란 창밖의 하조대해변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창가자리가 인기이며, 베이커리류도 인기가 상당해 일찍이 품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시그니처 메뉴인 돌고래 티라미수는 마스카포네치즈를 듬뿍 넣어 직접 만들었다고 한다. 창가자리를 놓치더라도 안쪽으로 넓게 조성된 공간 또한 따듯한 감성이 가득하니 너무 아쉬워 말자!

플리즈웨잇

낮에는 카페였다가 한밤엔 펍으로 변신하는 양리단길 대표 힙플레이스 플리즈웨잇.
매장 한가운데에 들어선 야자수와 화려하게 감싸는 조명으로 마치 발리에 여행 온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곳이다. 가게이름이 플리즈웨잇인 이유가 성수기에 자리조차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는 속설이 돌 정도로 인기가 많은 곳이니까 꼭 방문해서 센스있는 음료도 즐겨보자.

양양전통시장

힙하고 요란한 분위기보다는 구수한 정감을 찾을 수 있는 양양 전통시장에서는 매월 4일과 9일로 끝나는 날에는 오일장이 열려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일정이 맞지 않아 오일장을 보지 못하더라도 시장 안쪽 고소한 튀김냄새와 전부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로컬맛집 '봄날은간다'와 푸짐한 양과 맛을 자랑하는 양양시장명물 '송이닭강정'은 상시 영업을 하니 꼭 맛보기를 추천한다.

서릿발 같은 창해滄海의 탕반湯飯음식

불땅에서 끓여 먹던 '섭국' 기억나세요

험한 남자들의 손으로 고추장만 벌겋게 풀어놔도 밥도 되고 술국도 되던 음식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같은 음식인데 집에서 먹을 때 보다, 한데 나와서 먹으니 둘도 없이 고량진미膏粱珍味한 맛이 난다. 기어코 술을 박잔에 가득 부어 취하도록 먹은 후가 되니. 시뻘겋던 해가 노래져 서산을 넘어가도록 불땅에 뒹굴며 부르던 한 곡절의 회한도 괴로울 것이 없던 음식이였다.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위기와도 같은 하루하루가 어느 새, 세월 깊은 이야기로 남을 나이가 되도록 이 맛을 못 잊어서인지 여름만 되면 달창 같은 솥뚜껑을 들었다 났다 조바심이 들던 국 한 대접 이였다. 꼭 이맘때 만 되면 그 동안의 세월을 돌이켜 해후하는 순간에도 문득, 여름날 동무들과 불땅에서 벌겋게 한 솥 끓여먹던 '섭국'이 생각난다.

'호천리 어만리虎千里 漁萬里'를 다짐하던 뱃일

섭국은 하루에 만리萬里를 돌아다닌다는 고기떼를 애가 빠지게 쫓던 어부들에게서 유래된 풍습음식이다. 호랑이가 천리를 갈 때, 바닷고기들은 만 리를 간다고 하기에, 만 개의 물결이 일렁인다는 만경창파에서 익히 '호천리 어만리虎千里 漁萬里'를 다짐하던 뱃일이다. 응당 뱃일은 이보다 더한 다짐을 해도 '저승 돈 벌러 가는 길'이라고 하였다. 그러니 만 리萬里를 가는 동안 사람도 고깃배도 무탈해야 할 것이고, 고기를 잡을 때는 실력보다 천운天運같은 '운수 빨'이 붙어야 하거늘, 예나 지금이나 어부의 삶이란 생生과 사死를 머물며 살아가는 '바다의 성군聖君'들이다.

그 위대한 성군聖君의 자리를 무탈하게 보전할 때의 신념이라는 것이 오직 '부정을 막아주는 고수레'뿐이라 여름날 복달임 음식으로 가려 먹던 탕반湯飯음식이 '섭국'이였다. 당시 복날이면 천렵음식으로 강이나 하천에서 개를 잡아 '개장국'을 끓여 먹던 풍습이 있었는데, 어부들은 이를 봐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될 부정한 풍습과 음식으로 여겼었다.

'섭국'은 이에 반하여 뱃사람들끼리 만들어 먹게 된 이유가 있었던 '천렵음식'이였다. 만선은 혼자서라도 늘상 품을 만한 뜻이여서 그 기대감에 허기를 모른다지만, 열 손을 보태더라도 대명천지에 더 없이 바쁜 것이 뱃일이다. 더욱이 밥심으로 버티는 일이라 창파에 띄운 뱃전에서 고운 밥은 먹지 못해도 한 그릇 뚝딱 먹어 치울 요기 꺼리로 '즉석 대용식'으로 만들어 먹게 된 '물회'와는 음식문화의 성질이 다른 섭국이다.

그때의 '불땅'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땅이 아니였다

후에는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삼삼오오 의기투합한 사람들끼리도 여름이면 심심치 않게 불땅에 솥을 걸고 끓여 먹던 양양의 대표적이고도 고유한 천렵음식이 되었고 천렵문화가 되었다. 남대천에서 흔히들 송장치기나 반두로 뚜거리를 잡아 뚜거리탕을 천렵국으로 끓여 먹듯이 말이다. 섭 맛이라고 해봐야 그냥 조개 맛 일 텐데 뭐 그리 대단할까 싶어 천렵국으로 까지 끓여 먹게 되었을 까 싶겠지만, 단지 '섭'이 있어서가 아니였다. 모래밭을 '진짜 흙 땅'이 아니라는 뜻으로 부르던 '불不땅'이 있어서였다. '섭국'의 천렵문화가 사라지기 전까지, 양양에서는 모래밭을 '불땅'이라고 하던 정감적인 사투리가 있었다. 그때의 '불땅'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땅이 아니라 사람들을 불러 모아 더불어 함께 공생의 이념을 실현케 해주던 유일한 문화 공간이었다. 이제는 추억도 희한도 모래 속에 파묻혀 버렸지만 그때는 놀이도 있었고, 신앙도 있었고, 삶도 나뒹굴던 불굴의 땅 이었다. 섭국은 그 공생의 땅에서 끓여 먹을 수밖에 없었던 모두를 위한 정情의 음식기도 하였다. 서릿발 같은 창해滄海의 시퍼런 바닷물에 찬밥을 말아 먹고, 문뜩 무얼 하며 살았는지 도랑처럼 갈라지고 패인 열 손가락마다 배인 아픔에도 어부에게 바다는 '성군聖君의 자리'이다. 그들이 그렇게 불땅에서 끓여 먹었던 섭국에는 신앙 같은 풍습 말고도 지금은 감히 느낄 수 없는 경쟁하지 않고 함께 살아줘서 고마웠던 끈끈한 삶의 단상들로 한 그릇이다.

〈**글 · 사진 :** 강원도 외식저널대표 황영철〉

YANGYANG NEWS

하나금융그룹과 국 · 공립어린이집 지원협약 체결

2020년 하나금융그룹 국공립어린이집 공모에 선정된 양양군과 하나금융그룹이 7월 22일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의 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기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양양읍 서문리 9-1번지 일원에 연면적 3,000㎡, 지상3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사업비 88억 가운데 지난해 국무조정실 균형발전위가 주관한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0억 7,900만원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 하나금융 국공립어린이집 공모 선정으로 24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보육 여건이 열악한 양양군 지역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플라이 강원 취항 등 외국인 관광객 맞이 '외국인 관광택시' 운영

지난 2월 관내 개인 및 법인 택시를 대상으로 외국인 관광택시 운영 신청 공고를 통해 운전자 모집을 완료하고 선발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및 문화관광 해설 교육을 실시했다. 또, 필수 관광지와 추천 관광지 등 1일 3시간 동안 갈 수 있는 관광지(낙산사, 양양전통시장, 하조대, 오산선사유적박물관, 서피비치, 죽도정, 휴휴암, 남애항, 오색주전골 등)를 코스로 운영하며, 이용객이 지불해야 할 택시요금은 20,000원으로, 이 금액 외의 차액을 사후에 군에서 도비가 포함된 보조금으로 지급해 정산할 계획이다.

해안-산악 잇는 양양뉴타운 삼각개발 속도

군은 체육타운으로 자리매김한 양양읍 내곡리 일대를 뉴타운으로 발돋움시키며 최근 고도제한까지 해제한 낙산지구와 현남면 동산해변에 이르는 삼각개발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이곳은 최근 브랜드 아파트인 '한양수자인 양양'과 앞서 입주한 이편한세상이 위치한데다, 주변에 게르마늄 온천이 개발되면서 샤르망 온천장을 비롯한 생활형 숙박시설이 신규로 개발되고 있어 향후 오색지구 등 산악관광지로 향하는 거점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양양IC에서 5분 거리라는 편리한 교통과 향후 추가적인 개발여건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양의 뉴타운으로 자리매김 할 전망이다. 양양군이 올해 초에 발표한 공시지가에서도 강원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등 투자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남대천 르네상스의 완공과 낙산해변의 개발로 형성될 양양관광특구의 중심지로서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몽돌이 들려주는 파도소리 들으며 '몽돌소리길' 걸어보세요!

양양비치마켓이 열리는 설악해변과 정암해변(몽돌해변)을 연계한 몽돌소리길 리모델링을 마무리하고 예술적 감성이 흐르는 걷고 싶은 길로 재탄생되었다.

군은 지난 3월 강원도 명품길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최근 강현면 설악해변~정암해변 1.2km 구간 리모델링을 마무리했다. 이를 위해 비치마켓 안완배 감독을 비롯한 40여명의 예술작가와 협업하여 데크길 오일스테인 작업, 조각, 그림, 공예 등 다양한 재능을 가진 비치마켓 예술작가들이 각 분야별 조형물과 데크 페인팅, 군(軍) 벙커 리모델링 등을 담당했다.

이번 사업으로 기존에 밋밋했던 길이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감성 글판 및 작품들로 채워지고, 예술적 감성을 더하여 새롭게 재창조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머무는 곳으로 거듭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산책을 즐기는 주민들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 구간은 시원한 바다 조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동해안에서는 보기 드문 몽돌해변으로 펼쳐져 있어 파도소리가 이채롭고, 특히 이번 사업으로 새롭게 단장된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풍광이 즐거움을 선사해주는 곳으로 주요 관광지로서 활용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 공모 국비 20억 확보

양양군이 국토교통부의 2020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 사업에서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분야로 '양양세계문화플랫폼 구축'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20억을 확보했다.
'양양세계문화플랫폼 구축' 사업은 양양국제공항 일원을 중심으로 주변의 주요 관광 거점을 특화, 발전시켜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양양국제공항 일원을 하늘길, 바다레저길, 역사문화길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여름철 무더위 잠시 피해가세요...그늘막 4개 설치 완료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해 폭염저감시설인 그늘막 4개를 유동인구가 많은 양양읍 군청 사거리와 종합운동장 주변 교차로에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를 완료한 그늘막은 기후환경 분석과 태양광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그늘막으로, 주변 온도와 바람의 세기를 분석하는 센서를 통해 자동으로 개폐되어 기후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고 태양광 전원 공급 장치를 이용하는 친환경 시설물이다. 스마트 그늘막은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대기하는 주민들에게 무더위와 비를 잠시나마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월말까지 공유재산 12,635필지 실태조사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10월말까지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총 12,635필지 2,211만160㎡로 양양군 소유 군유지 1만 2,523필지 2,200만4,797㎡와 위임 도유지 112필지 10만5,363㎡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관리대장의 사전조사를 거쳐 진행될 계획이다.

양양읍 임천리 회전교차로 설치

국도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 등으로 인한 지 · 정체 교차로 구간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양읍 임천리 임천교 일원 사거리(양양읍 임천리 35-3 일원)에 회전 교차로를 설치한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7월 착공에 들어가 10월중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치 농 · 특산물판매장 운영 재개

빈 건물로 장기간 방치되어 온 양양군 강현면의 물치 농특산물판매장이 운영을 재개했다. 7월 16일 농특산물판매장 및 휴게음식점으로 오픈을 시작으로 영업 재개에 들어갔다. 이곳에는 12개 업체 및 농가의 표고분말, 표고차, 송이과자 · 젤리, 오곡산채(분말), 뚝딱 시래기된장국 등 지역 농산물로 만든 농특산가공식품 32개 품목이 입점 되어 있다. 민 · 관이 서로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양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의 홍보판매의 새로운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양 쏠비치에 지역 농 · 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여름 휴가철을 맞아 양양 쏠비치를 찾는 피서객을 대상으로 여름 성수기인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오후 3시부터 저녁 9시까지 쏠비치 베누스광장에 한시적으로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 중이다. 직거래장터에 입점하는 농가는 낙산배 농원, 강소농연구회, 대솔 · 양양처럼 · 구룡령양봉영농조합, 용천 과수농가 등 7개소로 배즙 · 배아이스크림 · 배슬러시, 송이젤리 · 과자 · 곤드레죽, 오곡산채(분말), 표고버섯 등 지역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과 신선한 제철채소 및 여름과일 등 24개 품목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군 청사 실내 인테리어 통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양양군이 청사의 노후화된 실내 시설을 인테리어를 통해 군의 역사와 관광 문화 등을 홍보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 1층에서 4층까지 계단실 및 2층에서 4층까지 복도 통행 공간에 전시 공간을 마련하는 등 단순 개선보다는 전문가를 선정하여 실내 통로 공간을 활용한 전시 · 홍보관을 조성하여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무실 문을 교체하고, 남녀 화장실의 인테리어도 실시한다.

2020년 제55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순연 확정

2020년 제55회 강원도민체육대회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순연 확정 되었다.
강원도체육회와 협의를 통해 순연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배정된 행사성경비 예산은 코로나 19방역 및 현안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 사업성경비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기장 보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양양군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출범

충혼탑 참배와 성황제 봉행으로 첫 행보 시작

충혼탑 참배

읍 · 면 순회 간담회

지난 7월 2일 출범한 제8대 후반기 양양군의회(의장 김의성)가 의장단 구성 후 첫 행보를 충혼탑 참배로 시작했다.

김의성 의장과 이종석 부의장은 7월 2일 현산공원 충혼탑을 참배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길렀다. 다음날인 7월 3일 코로나19로 취소된 양양문화제의 일부행사인 성황제 제례를 봉행하여 국태민안과 풍농풍어를 기원하였다.

또한 4일 간의 일정으로 양양소방서, 양양지구대 등 유관기관 및 단체 21개소를 방문하여 의정활동을 위한 협조 체제를 굳건히 하였으며, 지난 7월 13일부터 23일 중 6일 간의 일정으로 읍 · 면 순회 간담회를 열어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 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열린 의회로서의 각오를 다졌다.

김의성 의장은 "군민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할 것이며, 군민과 함께 하는 양양군의회가 되도록 동료의원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고 말하며 향후 양양군의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예고했다.

2020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용왕제 봉행

양양군의회 김의성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지난 7월 10일 낙산해수욕장에서 열린 용왕제를 봉행해 태평성대와 풍농풍어를 기원하며, 특히 코로나19여파 속에 해수욕장이 개장된 만큼 감염피해가 없고, 사건 ·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영되기를 기원하였다. 또한 의원들은 각 마을별 해수욕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코로나 예방을 위해 힘쓰는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상하수도사업소 정수장 현장 점검

지난 7월 22일 양양군의회(의장 김의성)는 최근 타 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태와 관련하여 양양군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하여 정수장 현장을 점검하였다. 의원들은 "주변 위생 및 질병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이고,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여과지 세척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 고 당부했다.

| 의원 간담회 개최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이전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보고

양양군의회(의장 김의성)는 지난 7월 6일 간담회를 열고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이전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보고를 청취했다. 의원들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계획된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외관 및 내부 시설물 배치 등에 대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하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설치하기를 주문하였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함은 물론,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주기를 당부했다.

코로나 19 관련 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 검토

양양군의회(의장 김의성)는 지난 7월 6일 간담회를 열고 군 보건소와 코로나 19 관련 예산성립전 사전사용 계획을 청취했다.
여름철 폭염을 대비하여 도비로 코로나 19 대응 선별진료소 의료진들에게 냉방용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의원들은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물품을 구입하여 주길 당부하며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7월 13일에는 군 경제에너지과와 간담회를 열고 2020년 중장년 농촌 일손지원 사업 예산성립전 사용계획을 청취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농 · 어가에 근로능력이 있는 중장년층 인력을 연결하여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의원들은 농 · 어가의 인력난이 해소되고 주민의 일자리 참여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양군의회 실시간 IP방송 청취 – 양양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angyangcouncil.go.kr)

자심탑 효행 이야기

영혈사 전경

부모에 대한 효행이 극진하여 어머니 돌아가신 후 돌을 쌓아서 탑을 세웠는데, 매일같이 그 아래에서 극락세계로 가시라고 기도를 드렸으므로 자심탑이라 한다는 이야기를 영혈사 노승 여잠이 1680년경 전하여 왔다.

옛날 양양 안심암(安心庵)에는 새벽과 저녁에 법당을 돌면서 종을 치고 목탁을 두드리며 도량을 정화하는 승려(僧侶) 자심(慈心)이 있었다.

속세에는 불교를 믿지 아니하는 부모가 살고 있었다.

보살행 권유

그러던 중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가 홀로 남게 되었다. "어머니 부처님을 믿으시지요?" 간청하였으나 도무지 듣지 않았다.

효성스러운 자심은 어머니를 절로 모시진 못해도, 매일 한 번씩 틈 있는 대로 어머니께 문안하고 위로하는데 정성을 다하였다. 절에서 기도하는 한편 탁발도 하여 봉양도 하였다.

비록 출가한 중이라고는 하나 홀로 남아있는 어머니 생전에는 불편 없이 지내도록 효성을 다하였다. 그러나 신심이 없던 어머니가 극락에는 가지 못할 것을 생각하니 어머니 죽은 후의 고초가 걱정되었다.

어머니 몫의 탑

자심은 어머니의 사후를 위해 어머니 몫의 탑을 세우기로 하였다. 그는 탑에 쓸 돌을 여러 곳에서 찾아 그 한 덩어리를 정성을 다하여 망치와 정으로 돌을 다듬어 어머니의 극락행을 소망하였다.

동료 승려가 그의 성실한 노력에 감동되어 협력하겠다고 자청하였으나 그는 모두 사절하고 홀로 자기 힘으로만 이 탑을 쌓아갔다. 그러다 보니 자심의 정성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이 걸렸다.

어머니의 사십구재와 도반(道伴)의 합력

그러던 중 아직 탑이 완성되기 전에 어머니가 병상에 눕더니 얼마 안 되어서 세상을 떠났다.

장례와 사십구재를 마치고 절에 돌아와 보니 자심이 완성하지 못했던 탑 윗부분이 깨끗이 완성되어 있었다. 자심이 이상히 여겨 동료들에게 물었더니 "자네 어머니가 염라대왕에게 심판을 받기 전에 탑이 다 완성되어야 그 탑의 공력으로 극락에 가겠기에 남은 부분을 우리가 합력하여 다 마치었네."라고 했다.

도반의 합력으로 5층 옥개석(지붕돌)과 보주를 다듬어 완성한 오층석탑은 훌륭하였다. 한편 고맙기도 하려니와 한편으로는

영혈사(2005년 이후)

영혈사(2001년경)

춘천경찰서(1999년대)

남의 힘으로 마치게 되어 개운치 아니한 데가 있었지만 이미 다 된 것이니 그대로 두고 날을 받아 탑제를 지내기로 했다.

자심의 꿈

그런데 탑제 바로 전날 밤 자심의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
"자심아! 나는 저승에 갔더니 염라대왕이 '너는 부처를 믿지 않아 지옥으로 보낼 것이나, 네 아들 자심이 불공드려 석탑을 다 쌓을 때까지는 미룬다.' 하더라."
자심은 어젯밤 꿈 이야기를 동료 스님에게 말 하고 양해를 구하여 겨우 그들이 납득이 가도록 설득하였다.
그날부터 자심은 전과 같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혼자 힘으로 염불을 하며 탑을 열심히 완성하였다.
아미타불의 은덕의 결정이었다. 자심은 탑을 안고 부처님에 무한 감사로 탑제를 올렸다.
탑제 날 밤 꿈에 또 나타나신 어머니는 비단옷을 입고 연꽃 속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연꽃을 타고 자심에게 오더니
"나는 그동안 극락도 지옥도 아닌 곳에서 고생하고 있었다. 이제 염라대왕이 불러 대왕 앞에 갔더니 대왕이 인과업보(因果業報)란 본인에 의한 것인데 그대는 생전 그대의 업보로는 당연히 지옥으로 갈 것이나 아들의 효성과 신심이 하늘에 사무쳐 오늘 아들 덕에 극락으로 가게 되었다."

자심의 효행 기도

그 후에도 한결같이 부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극락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중생을 고해에서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기원하였다.
그 뒤부터 이 탑을 자심탑이라 부르게 되었고, 죽은 부모가 극락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꼭 이 탑에 와서 기도를 드렸다고 하였다.

자심탑의 수난

자심탑은 일제 강점기부터 옮겨 다니는 수난을 당하였다.
일제 강점기는 안심암에서 해체되어 화일리 마을로 옮기어 져 있다가 1957년에 춘천경찰서로 5개 옥개석만을 가지고 가서 새로 탑신석을 만들어 정원에 안치하여 2000년경까지 존치되었었다.
2000년경 영혈사로 4개의 옥개석만을 영혈사 경내로 옮겨 안치하였다. 1층 옥개석은 분실되었다.
2005년 천년고찰 영혈사 경내에 불사(佛事)하여 자심탑을 5층 석탑으로 복원하여 지금은 불제자와 방문객이 부모님 천도를 위해 이 탑에 와서 기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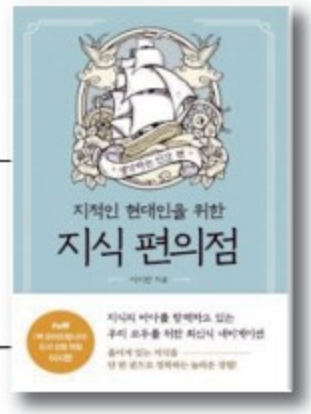
다음은 고려시대 나옹선사(惠勤:혜근1320년~1376년)의 안심암에 대한 시문을 소개한다.

懶翁禪師詩(나옹선사시)

忽到安心三兩日(홀도안심삼량일) / 홀연히 안심(安心)에 와서 이 삼일 머물고
心身歇了向襄州(심신헐료향양주) / 몸과 마음을 쉬고 나서 襄州로 향하였다.
道人蹤跡誰能挽(도인종적수능만) / 도인의 종적을 누가 능히 되살리려나
東海岩邊任自遊(동해암변임자유) / 동해안 바위 가에서 자유롭게 노닐련다.

글 · 사진 양양문화원

이달의 책이야기



지식 편의점 : 생각하는 인간편

이시한 지음 | 흐름(2020. 7월)

지식에 목마른 현대인을 위해 필요한 것만 알차게 담았다! 세상을 변화시킨 총 18권의 고전에서 찾아낸 묵직한 인사이트

『지식 편의점』 시리즈는 시대를 관통하여 이어져온 주요 고전을 살펴보고 구조화하여 명쾌하게 전달하되 현대인이 쉽게 써먹을 수 있게 하고 한 발짝 더 나아가 독자 스스로 인사이트를 발견하도록 돕고자 기획된 시리즈 이다. 이번『지식 편의점: 생각하는 인간 편』에서는 "유례없는 발전의 속도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인간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앞에 두고 시작한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려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인류의 여정이 어떻게 꾸려져왔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이시한은 시대를 항해하는 고전 18권을 하나의 궤로 엮었다. 이 책은 '레벨 1 질문하는 인간, 레벨 2 탐구하는 인간, 레벨 3 생각하는 인간'의 총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레벨 1에서는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묻는『사피엔스』부터 유발 하라리가『사피엔스』를 쓰도록 영향을 준『총, 균, 쇠』를 거쳐『그리스 · 로마 신화』와 그 어렵다는『역사』까지 살펴본다. 레벨 2에서는 신이 지배하던 세계에서 시민이 권력을 가져오기까지의 과정을『국가』부터『장미의 이름』『군주론』『리바이어던』『로빈슨 크루소』『법의 정신』『에밀』『월든』『자유론』『1984』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탐구한다. 개인이 부족이 되어 국가가 되기까지, 신이 지배하던 사회에서 시민이 권력을 가져와, 비로소 민주주의가 탄생하기까지의 흐름을 담아냈다.

◆ 책 속 한 구절 ◆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아마 권력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신체적 능력이나 정신적 능력은 거의 비슷해서 자연권을 무한히 추구하다 보면 늘 갈등과 전쟁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들은 비등비등한데, 그것을 가지기 위한 능력 역시 비등비등하니까요. 바로 여기서 그 유명한 말인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는 토머스 홉스의 말이 나오는 거죠.

_158쪽『리바이어던』

양양교육도서관에서 추천하는 이달의 신간도서

방구석 미술관

조원재, 블랙피쉬(2020)

가볍고 편하게 시작하는 유쾌한 교양 미술

예술 분야의 베스트셀러로 꾸준히 사랑받아 온 〈방구석 미술관〉이 2년 만에 10만 부 판매 기록을 돌파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특별판으로 출간한 이번 책은 '프라이빗 미술관 에디션'으로, 프랑스 파리의 3대 미술관 중 하나인 오르세 미술관을 나만의 방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초대한다.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오르세 미술관의 작품을 나만의 방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스페셜 에디션은 일러스트레이터 '싸비노'의 작품과 만나 현대적이고 개성 있는 표지로 소장 가치를 높였다. 이 책이 오래도록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미술은 누구나 쉽고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라는 모토 아래, 멀게만 느껴졌던 화가들을 인간미 넘치는 '형'과 '누나'로 만드는 작가의 재기발랄한 스토리텔링에 있을 것이다.

좀비 아이

조용, 위즈덤하우스(2020)

인기 드라마 속 바로 그 책!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

서로 다른 세 사람이 만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 가는 조금은 이상한 로맨틱 코미디 〈사이코지만 괜찮아〉. 드라마 속 사랑을 모르는 유명 동화 작가 문영이 쓰고 그린 동화들을 책으로 만나는 '사이코지만 괜찮아 특별 동화' 시리즈가 위즈덤하우스에서 출간된다. 대본을 맡은 조용 작가와 일러스트를 그린 잠산 작가가 직접 참여하여 여운과 감동을 그대로 담아냈으며, 극 중 문영의 친필 사인 인쇄본으로 소장 가치를 더한다.

글 · 그림 출판사 제공 자료 발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30인 미만 소상공인 · 영세기업의 적극적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유도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1. 운영기간 : 2020. 7. 6. ~ 9. 30.(약 3개월간)
2. 대상사업장 :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3. 신고사항 : 피보험자격 취득 · 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4. 제공혜택 : 피보험자격 미신고 과태료 면제(1인당 3만원)
* 근로자 확인청구로 사업주가 적극 협조하여 관련자료 제출한 경우도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 · 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5. 문의 :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 (☎ 033-640-9119)

2020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계량기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2020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 분도 빠짐 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사일자	검사시간	대상지역	검사장소
8. 10.(월)	오전	현남면	현남면사무소
	오후	현북면	현북면사무소
8. 11.(화)	오전	손양면	손양면사무소
	오후	강현면	강현면사무소
8. 12.(수)	오전	서면	서면사무소
	오후	양양전통시장	양양전통시장
8. 13.(목)	오전	양양읍	양양읍사무소
	오후		

※ 오전 : 09:00 ~ 12:00, 오후 : 13:30~17:00
※ 8.10.(월)~8.13.(목) : 소재장소 정기검사
※ 해당일자에 검사가 어려울 시, 타 읍·면 검사일에 방문하여 검사 가능

□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 t 미만의 저울**
-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 10t 미만 및 이상의 전기식지시 저울을 함께 사용하는 분은 10t 이상 저울 재검정시 10t 미만 저울도 재검정을 받는 것이 비용이 절감됩니다.

□ **문의처 :**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 (☎033-670-2219)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에너지과
TEL. 033)670-2289 / FAX. 033)670-2303

사업장명	모집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양양오색한과(주)	4명	한과포장원 (기간제 2개월)	09:00~18:00	시급 8,590원
해담마을	5명	청소원 (방가로,펜션 야영장)	08:30~17:30	1일 10만원
일송영농조합법인	3명	생산직 경리사무원	08:30~17:30 (주5일)	시급 8,590원
e편한세상아파트	2명	환경미화원	주중:9시~15시 토:9시~11시	월1,211,190원
㈜해성코리아	10명	모델하우스 홍보원	09:00~18:00	시급 1만원
양양식자재마트	10명	야채,청과/계산원 공산품진열	08:00~22:00 (시간협의)	협의
(유)양양지활 환경자원센터	2명	재활용 분리선별원	09:00~18:00 (주5일)	월179만원
맘마미아	1명	쇼핑몰관리인	09:00~18:00 (주5일)	월179만원 (협의)
디모테오 꿈마을요양원	1명	요양보호사	3교대	협의
코코양양	1명	매장업무 보조원	07:00~16:00 (주6일)	월230만원
㈜제성정보통신	2명	통신장비설치,수리원	08:30~18:00 (주5일)	연2,400만원이상 (협의)
핌일레븐에이커	3명	음료제조 및 매장보조원	11:00~18:00 (금,토,일 근무)	시급 8,590원 (경력자 협의)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매년 7월 1일 현재 우리 군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

□ 과세표준 및 세율

구 분		세 율
개 인	주소를 둔 개인	10,000원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자	50,000원
법 인	관내 사업소 자본금, 종업원 수에 따라	50,000원 ~ 500,000원

□ 납 기 : '20. 8. 16 ~ 8. 31
□ 납부방법
- 위택스(http://www.wetax.go.kr), 금융기관 공과금수납기, 가상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 군청 세무민원실 및 읍 · 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신용카드 납부

□ 문 의 양양군청 세무회계과(부과) ☎033-670-2274

정보꾸러미

양양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1. 신고제 운영사항

가. 신고대상 : 어린이보호구역내 주 · 정차된 차량

나. 운영시간 : 평일 08:00 ~ 20:00 ※ 토 ·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어린이 보호구역 내(초등학교) 4대 불법 주 · 정차 금지구역(소방시설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은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

다.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생활불편 앱(국민신문고)

라. 신고요건

–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 2장 이상

– 신고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안전표지[주 · 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마. 과태료 부과: 위반지역, 시간 등 증거자료를 확인 후 요건 구비 시 부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7(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

2. 시 행 일 : 2020. 6. 29.

※ 주민신고제 접수분에 한하여 계도기간(6.29~7.31) 운영, 이 기간 동안은 계고장 발부

3. 과태료 부과 시기 : 2020. 8. 3. 주민신고 접수분 부터

제2회 김유정 청소년 문학상 공모

1. 목적 및 취지

김유정작가의 정신과 작품세계를 널리 알리고 미래의 한국 문단을 이끌어 나갈 청소년 작가들을 초대

2. 공모부문 및 분량 : 시(3편 이상), 산문(1편이상, A4 용지 2매~2.5매 분량, 글자크기 11pt

3. 응모자격 : 전국 중 · 고등학교 또는 해당 연령 청소년 (단, 해당 연령이어도 대학교 재학생인 경우 응모 불가)

4. 응모방법 : (사)김유정기념사업회 E-mail yjkim1908@daum.net

5. 문의 : 070-4300-8663 HP 010-3110-9610

6. 접수기간 : 2020. 7.10(금) ~ 9.10(목)

7. 입상작 발표 : 9월중 김유정기념사업회 홈페이지 (http://www.yjkim.co.kr) 및 개별통보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모집 안내

1. 지원대상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 18세~69세 저소득층 및 미취업 청 · 장년 등 대상으로 취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7~15개월간의 프로그램

Ⅰ유형: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 중위소득 60%이하, 특정취약계층

* 특정취약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여성가장,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15세~24세) 등

Ⅱ유형: 청년(만18세~34세 소득무관), 중장년(만35세~69세, 중위소득 100%이하)

2. 가구원 중위소득 기준(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 (A)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패키지 Ⅰ (60%이하)	소득인정액 (B=A×0.6)	1,054,316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1	4,433,829
	건강보험료 (B×0.0323)	35,161	59,870	77,450	95,031	112,612	130,192	147,868
패키지 Ⅱ (100%이하)	소득인정액 (B=A×1)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건강보험료 (B×0.0323)	58,602	99,783	129,084	158,385	187,686	216,987	246,447

3.지원내용

1단계 취업상담	→	2단계 직업능력 향상	→	3단계 취업알선
직업심리검사 구직경로 설정		직업훈련 (www.hrd.go.kr에 등재된 훈련 과정만 지원 가능)		이력서, 자기소개서 클리닉 구인업체 지정알선
참여수당 15~20만원		훈련비 50~100% 지원 (훈련과정에 따라 상이) 80% 출석시 월 최대40만원 (최대 6개월)		구직촉진수당 최대 150만원 (가구원 중위소득 60% 이하만 대상)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Ⅰ유형만 해당)

※ 구직촉진수당은 "코로나 19"로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재도입

– 대상: 2020.1.1. 참여자 중 가구원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되는 자는 50만원*3개월 지원

– 기초연금수급자 등 만 65세 이상은 월 20만원 지원

4. 신청방법

속초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팀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www. work.go.kr/pkg)

※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건강보험증 등 제출 필요

※ 특정취약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2019년 소득금액증명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영세자영업자(2019년 과세표준증명원), 여성가장(가족관계증명서), 신용회복지원자(관련기관 확인서), 결혼이민자(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북한이탈주민(관련기관 확인서), 위기청소년15세~24세(관련기관 확인서)

5. 문의전화 속초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팀 033)630-1902, 630-1905

정보꾸러미

1등 500만원의
전국민 참여 프로젝트!

뭐
양양?

2020 양양군 UCC공모전
공모기간 : 2020. 7. 15.(수) ~ 11. 30.(월)
공모주제 : 양양 관광, 축제, 서핑, 먹거리 등 콘텐츠
공모분야 : 영상(UCC)분야 참가자격 : 전국민 누구나(개인, 팀별 참가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문의 : 양양군청 기획감사실 홍보팀 033-670-2103

2020년 8월 양양국제공항

국내 · 국제선 운항스케줄

■ 국내선

항공사	운항노선	운항요일	편명	기종	좌석수	출발	도착	비고
플라이강원	양양 →클락	매일	4V215	B737	186	21:30	00:30	8월 비운항
	클락 →양양	매일	4V216			01:30	06:30	
	양양→ 타이페이	월	4V201	B737	186	09:55	11:45	8월 비운항
		화				10:20	12:10	
		수-토				09:55	11:45	
		일				08:55	10:45	
	타이페이→ 양양	월	4V202			12:45	16:25	
		화				13:10	16:50	
		수				12:45	16:25	
		목				12:50	16:30	
		금,토				12:45	16:25	
		일				12:10	15:50	

■ 국내선(주107편)

항공사	운항노선	운항요일	편명	기종	좌석수	출발	도착	비고
플라이강원	양양→제주	월	4V501/505	B737	186	09:30/17:10	11:00/18:40	
		화				10:00/16:55	11:30/18:25	
		수				10:00/17:10	11:30/18:40	
		목,금				10:10/17:10	11:40/18:40	
		토				06:10/17:00	07:30/18:30	
		일	4V501/505/507			09:00/10:10/16:55	10:30/11:40/18:25	
	제주→양양	월	4V502/506			11:35/19:15	12:55/20:35	
		화				12:05/19:00	13:25/20:20	
		수				13:05/19:15	14:25/20:35	
		목				12:15/19:15	13:35/20:35	
		금				12:15/19:15	13:35/20:35	
		토				08:05/19:35	09:25/20:55	
		일	4V502/506/508			12:15/18:35/19:00	13:35/19:55/20:20	
	양양→김포	금,일	4V511			18:00	18:55	8/14부터~
		토				08:00	08:50	
	김포→양양	금,일	4V512			19:35	20:35	
		토				09:30	10:30	
	양양→대구	금,토	4V517	B737	186	07:40	08:40	
		일				14:20	15:20	
	대구→양양	금,토	4V518			09:20	10:20	
		일				15:55	16:55	
제주항공	양양→김해	월금토일	7C372	B737	189	15:20	16:35	8/23 까지
		수				14:45	16:00	
	김해→양양	월금일	7C371			10:30	11:45	
		수토				10:35		
티웨이항공	양양→김해	월-목,토일	TW9952/54/56	B737	189	10:10/14:30/20:05	11:10/15:30/21:05	
		금				11:10/14:30/20:35	12:10/15:30/21:30	
	김해→양양	월-수,토일	TW9951/53/55			08:35/12:10/18:05	09:35/13:10/19:05	
		목				08:35/12:10/17:30	09:35/13:10/18:30	
		금				08:35/12:45/19:05	09:35/13:10/20:05	
	양양→광주	매일	TW9922/24			12:45/19:30	13:55/20:40	
	광주→양양		TW9921/23			08:15/17:35	09:20/18:45	